

소쿠리 한가득 연분홍 진달래 QLED에 흠뻑려

“연분홍 찾으러 온세계 물감 다 써본듯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생명력 담았다”
갤럭시노트로 그려 디지털 이미지 생생

진달래 화가 김정수 화백

진달래가 바구니에 한 잎 한 잎 떨어
져 쌓여가고, 도시의 허공과 황량한 벌
판 위에 하늘거리며 흩날린다. 삼성
QLED 패널 속에 디지털 이미지로 펼쳐
지는 김정수 화백(64)의 작품들이다. 기
존의 평면적인 원화 전시가 아니다.
‘진달래 화가’로 유명한 김정수 화백의
작품이 미디어아트를 만나 새롭게 태어
났다. 김 작가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리는 김정수 개인전 ‘진달
래-축복’은 삼성전자 QLED TV를 캔버
스로 활용한 9점의 미디어작품과 유화
20점을 선보였다.

전시에서는 삼성과의 협업으로 새로
게 시도한 영상작품을 처음 소개해 눈
길을 끌었다. 작가는 구상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QLED와 더 프레임(The
Frame) TV 패널을 이용해 원화의 따스
하고 아름다운 진달래 꽃잎의 느낌을 최
대한 실력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전시는 종이, 캔버스, 벽 위에 작
업하는 그림의 고정관념을 깨고 현대 사
회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보
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책, 영화를 옮
기듯 그림도 캔버스에서 TV나 스마트폰
과 같은 디지털 매체로 옮겨 하나의 완
전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최근 선화랑에서 만난 김정수 작가는

“작업하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까
지 소수의 애호가들이 평면 작품을 샀
다면, 앞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TV 그
림’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중
요한 자리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좀 더
많은 작품을 공유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어요.”

진달래 연작에서 무엇보다 공을 들
인 부분은 꽃잎 고유의 색감 표현으로
QLED와 Frame TV 패널을 통해 잘 담
아낼 수 있었다. 김 작가는 가치보장의
불확실성, 무단 복제, 사후 서비스 등의
현실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디지털화 방
식이 보통의 회화작품처럼 거래될 수 있
는 미디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종이나 연필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모든 스케치 작업을 삼성
‘갤럭시 노트’로 해요. 디지털 시대에 맞
춰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캔버스를
대신해 모든 작업의 결과물을 TV 화면
에서 재현할 수 있어요.”

김 작가는 20년 이상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불꽃 진달래를 소재로 작업해오
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색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아마포(삼베와 아사의 중간) 위
에 물감을 바르고 말렸다가 또 덧바르는



진달래 화가로 유명한 김정수 작가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진달래-축복’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 QLED TV를 캔버스로 활용한 9점의 미디어작품과 유화 20점을 선보였다. 사진=정성윤 기자

반복 과정을 거쳐 진달래 색을 우려낸다.
“한국 사람들도 진달래와 철쭉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햇볕에 반짝이는 맑
고 투명한 진달래 색을 찾기 위해 전 세
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감을 사용해
본 것 같아요. 색이 조금만 진하면 중
국인이 선호하는 철쭉이 되고, 색깔이
바래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이
되거든요.”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다니
다가 1982년 2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우연히 비디오아트 창

시자 고(故) 백남준 화백과의 만남과 조
연을 계기로 평면 회화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유명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을 정도
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영주권까지 취득
해 10년 가까이 파리에서 생활했다.

1990년대 초, 한국 초대전 문제로 잠시
귀국하면서 화가로서 두 번째 전환기를 맞
는다. “반은 한국인, 반은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당시 종로 거리를 걷
고 있는데 김수희의 ‘애모’가 흘러나왔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나는 뻥속 깊
이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오랜 파리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
온 그는 한국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깊
게 고민했다.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업을 하자’고 결심한 이후 시
나 소설 등 한국 문학작품을 다치는 대
로 읽었고,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진
달래꽃이었다.

김정수의 연분홍빛 진달래 꽃잎은 유
년시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
정을 상징한다. “중학생 시절 문제이었
어요. 어느날 어머니가 저를 뒷산에 데
리고 가더니 ‘많이 아프냐. 힘들어도 때

가 되면 너도 언젠가 진달래꽃처럼 활짝
필거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풍경이 한
국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퍼주시던 고봉밥을 대소쿠리에 한가득
담은 진달래 꽃잎으로 녹여냈어요. 제
그림을 보고 단 한사람이도 마음이 따뜻
해지고 감동받길 바래요. 어머니의 무한
한 사랑이 가슴에 와닿고, 힐링이 됐으
면 좋겠네요.”

신성아 기자 mystery37@hanmail.net

“승리, 마약풍선 ‘해피벌룬’ 파티도”

“아산화질소 넣은 ‘웃음풍선’
2015년부터 이태원서 흡입”
“주점 직원 증언” 보도 나와

성접대·횡령·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
현)가 3·4년 전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
방 멤버들과 함께 ‘마약풍선’으로 불리
는 ‘해피벌룬(happy balloon)’을 흡입했
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N2O)’를
넣은 풍선 제품명으로, 이를 흡입하면
10~20초 가량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 흡입시 안면근육
에 일부 마비 증세가 와 ‘웃음가스’로 불
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아산화질소
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
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2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모 주점 직원들
이 “2015년 말~2017년 초, 승리와 유
OO(34) 유리홀딩스 전 대표(34), FT이
일랜드 전 멤버 최중훈(29), 승리 친구
김OO 씨 등이 해당 주점을 자주 드나들
며 ‘환각 파티’를 즐겼다”고 주장한 것으
로 전해졌다.

이 중 직원 A씨는 <동아일보> 측에
“2015년 5월 무렵부터 승리 일행이 늘 20

대 초중반의 여성들과 짝수를 맞춰 주점
에 왔다”며 “이들은 여성 한 명씩을 옆
에 두고 해피벌룬을 흡입하며 술자리를
즐겼다”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점 직원들은 “승리
일행은 아산화질소가 함유된 휘핑크림
캡슐이 수십 개 담긴 박스를 주점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받아 환각 파티 때 사용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님이 봄비는 주말에도 승리 일
행이 거리낌 없이 환각 파티를 벌이는
바람에 주점 측이 ‘여기에서 마약을 하
면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까지 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주점 직원 B씨는 “2016년 초
승리 친구 김씨가 ‘물뽕(GHB)’을 가져온
것을 봤는데, 얼마 뒤 김씨가 비틀거리며
몸을 못 가누는 한 여자를 부축해 나가는
걸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베트남 매체인 ‘바오모이닷컴
(baomoi.com)’은 지난 2월 “2017년 2
월께 베트남 소재 클럽에서 승리가 어떤
여성의 도움을 받아 해피벌룬을 흡입하
는 듯한 사진이 찍힌 적이 있다”고 보도
했으나, 당시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엔
터테인먼트는 “문제의 사진은 교묘하게
짜힌 것이고, 클럽처럼 공개적인 장소에
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었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베트남 매체 ‘바오모이닷컴’은 지난 2월 “2017년 2월께 베트남을 방문한 승리가 어떤 여성의 도움을 받아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장면이 포착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바오모이닷컴

BTS, 빌보드 ‘핫100’ 8위 K팝 그룹 최고 기록 경신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으로 미
국 ‘빌보드 200’ 1위와 ‘핫 100’ 8위에
함께 오르는 신기록을 세웠다.

22일(현지시간) 빌보드는 메인 싱
글 차트인 ‘핫 100’의 톱 10을 분석하
는 기사를 통해 “할시(Halsey)가 피처
링에 참여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
을 위한 시(Boy With Luv)’가 ‘핫 100’
차트 8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새 앨범 ‘맵 오
브 더 소울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의 타이틀곡 ‘작
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feat. Halsey’는 방탄소년단이 두 번
째로 ‘핫 100’ 톱 10에 올린 곡으로,
2018년 6월 빌보드 ‘핫 100’ 10위에 랭

크됐던 ‘페이크 러브(FAKE LOVE)’
의 기록을 자체 경신하며 한국 그룹 최
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탄소년단은 한국 그룹 최초
이자 한국 가수 중 두 번째로 ‘핫 100’
톱 10에 2개 이상의 노래를 올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빌보드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스트리밍
송’ 차트 5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3위, ‘팝 송’ 차트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와
타이틀곡 ‘핫 100’ 8위 기록은 오는 23
일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되
는 차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신간 서적

진정성 마케팅

지음 김상훈, 박선미
퍼냄 21세기북스
264쪽 1만6000원



광고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광고
전문가와 19년째 마케팅을 가르치
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함께 쓴 ‘진정
성 마케팅’은 마케팅 불신의 시대에 통
할 마케팅 전략을 9가지로 정리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같은 첨
단 마케팅 기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은 마케팅이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분석한다.

오토노미 제2의 이동혁명

지음 로렌스 번스,
크리스토퍼 숄겐
퍼냄 비즈니스북스
536쪽 2만2000원



5G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0년 동안
구글, 테슬라, 우버와 같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무인차, 즉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개
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지형은 물론
인간의 이동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가
져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율주행차의 발
전상과 뒷배기들을 소개한다.

미세먼지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지음 김동식, 반기성
퍼냄 프리스마
392쪽 2만2000원



오랫동안 날씨와 공기 서비스 기업
에서 일한 저자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 문제 해결 방
향을 제시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국내외 연구
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된
다. 나아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측·
예보하는지 외국 사례와 비교해 소
개한다.

행복의 심리학

지음 대니얼 네틀
퍼냄 와이즈북
296쪽 1만5000원



영국의 행동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저자는 뇌과학, 행복도 조사 등을 토대
로 그 과학적 원인을 들여다본다. 우리
는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욕
망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이런 욕망
과 성취 사이의 갭은 항상 좌절의 근원
이 된다. 행복에 대한 맹목적 생각들이
행복행을 가르코 현대적 전염병인 스
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촉발하는 강력
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비트코인 1억 간다 2019

지음 신의두늬
퍼냄 솔트앤씨드
340쪽 1만7000원



암호화폐는 한때 새로운 돈벌이 수
단으로 주목받았으나 극심한 가격 변
동성 탓에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 위기
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
스템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세계 톱3 정보기술(IT)
기업 페이스북은 지난해 달러와 연동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

지음 신동기
퍼냄 M31
304쪽 1만4500원



철인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
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
고 했다. 이 책은 자칫 딱딱하고 복잡해
보이는 정치에 대해 상식과 교양 수준
에서 쉽게 풀어쓴 정치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급언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정치를 어느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정치 개론서를 펴내게
됐다고 한다.